

高3 구제 나선 시·도교육감 “수능 난이도·일정 조정해야”

학교수업 파행... 高3 피해 우려
교육감협의회 총회서 방안 논의
교육부에 구제방안 정식제안 계획

고3 수험생이 대학입시에서 불리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시·도교육감들이 수능 난이도나 일정 등 조정에 대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교육감들은 논의를 거쳐 내달 교육부에 공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내달 9일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제73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고3 대입 구제 방안’을 논의한 뒤 교육부에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수업이 파행 운영되면서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를 고3 학생들과 재수생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재수생보다 공부할 시간이 적었던 올해 고3 수험생들 사정을 고려해 올해 수능을 예년보다 쉽게 출제해야 한다며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은 온라인으로 열린 시민과 만나는 행사에서 “절대평가가 평가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을 예년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은 온라인으로 열린 시민과 만나는 행사에서 최근 “고3 재학생의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면에서 졸업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을 예년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올해 고3 수험생들의 입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정변경’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에는 “반수생, 재수생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수능 범위에서 고3 교육과정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수능 추가 연기 주장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수능을 한 달은 미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도 이런 의견을 내놨다.

시·도교육감들은 내달 9일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제73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고3 대입 구제 방안’을 논의한 뒤 교육부에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7월 중 고3 학생들을 위한 입시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내용이 입시대책에 반영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교육계에서는 고3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되면서 각 대학에서 수·정시 전형방법 조정 등 ‘고3 대입 구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

3등교가 석 달 가까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재학생의 수능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서울대는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기존 ‘3개 영역 2등급 이상’에서 ‘3개 영역 3등급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올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3학년에 해당하는 수상경력과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도 대입 평가 수정안을 내놨다. 2021학년도 수능은 오는 12월 3일 치러지며 재학생과 재수생 60만여 명이 지원한다.

하지만 ‘쉬운 수능’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쉬운 수능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도 나온다. 한 고교 교장은 “수능에서 난도가 낮아지면, 원점수 평균이 오르면서 상하 20%의 표준점수가 낮아지고,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변별력 문제가 발생한다. 동점자에서 합·불이 나누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면서 “정작 일반 학생 대부분은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시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 재학생을 배려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3과 N수생 간의 점수 격차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달 치러진 대학 수능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점수 격차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가 지난해 6월 모의평가와 지난 18일 치러진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비교한 결과, 난도가 낮았던 국어의 경우 조사 대상 재학생과 졸업생의 평균 백분위 차이가 지난해 7.69%포인트에서 올해 8.34%포인트로 벌어졌다. 난도가 높았던 수학 가형은 9.36%포인트에서 9.2%포인트로 좁아졌고, 쉬웠던 수학 나형은 9.06%포인트에서 9.56%포인트로 오히려 벌어졌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올해 수능이 쉬워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 배경은 올해 고3과 N수생 사이의 학력 격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거론되기 때문인데 이번 분석에선 쉬운 시험이라고 해서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인천대, 국내대학 최초 물류혁신 서비스 런칭

구매·배송 119서비스
학교 운영 필요상품 빅데이터 관리
연택트 자동화로 문 앞까지 당일배송

국내 최초로 대학 MRO서비스를 도입한 인천대가 도입 3년 만에 또다시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물류 혁신 서비스를 내놨다.

인천대는 인천대학교출판문화원이 지난 26일 MRO 사업 위탁사인 인터파크비즈니스의 허탁 대표이사과 ‘구매·배송 119서비스’ 런칭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대

‘구매·배송 119서비스’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상품 중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돼야 하는 상품들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몰에서 관리하고, 구매자가



조동성 인천대 총장(오른쪽)이 26일 MRO 사업 위탁사 ㈜인터파크비즈니스의 허탁 대표이사과 ‘구매·배송 119서비스’ 런칭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대

온라인몰을 통해 구매하면 문 앞까지 당일배송이 진행되는 연택트 자동화 서비스이다.

MRO는 소모성 자재를 구매하고 시

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칭하는 경영학 전문 용어이다.

‘구매·배송 119서비스’는 교내 MRO 서비스가 단순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매과정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 이후의 필수사항인 상품 검수를 배송 전 시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객에게 안전하게 상품을 인도하는 과정까지 서비스 폭을 확장하고 소비자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된 교내 맞춤형 서비스라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구매·배송 119서비스’는 긴급한 물품 구매를 돕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인천대의 주소인 아카데미로 119를 반영해 인천대만의 서비스란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현진 기자

우리는 전우의 차별을 반대합니다



문명철 기자의
국방 칼럼

“우리는 전우의 차별을 반대합니다. 차별을 반복하는 육군은 언젠가 망할 것입니다” 현역 육군 청년장교들이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육군은 지난 26일 충북 괴산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학사사관 65기·단기간부사관 41기의 임관식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육군은 “학사장교 등의 임관식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 재량”이라며 시정의사가 없을 전했다.

이들 565명의 신입장교들은 장교 양성교육 입수 때부터 차별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이유로 잘 갖춰진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장에서 임관식이 끝난 한참 뒤에서야 일부 지역 기자들에게만 보도자료를 보냈으니 말이다.

그런데 육군은 코로나19 확산예방에 동참한 이들이 부끄러웠나 보다. 임관식이 끝난 한참 뒤에서야 일부 지역 기자들에게만 보도자료를 보냈으니 말이다.

육군은 이들의 3년 선배들인 학사사관 62기·단기간부사관 38기가 임관했던 지난 2017년 6월 25일에도 육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육군은 공교롭게 학사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인 3년 주기로 기다렸다

는 듯이 천대와 모멸감을 임관선물로 줬다. 2017년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육군의 다짐은 ‘뺨이야’였다. 차별과 푸대접은 일부 장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육군의 적후로서 싸움의 전문가로 불리는 부사관의 경우 더 심각하다.

지난 23일 육군 인사사령부는 민간부사관 남군 2기 선발관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을 아르바이트 정보사이트인 ‘알바천국’에 게재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개그맨의 일자리를 뺏을 정도로 웃기고, 한편으로는 화가나는 내용을 알바천국에 올렸다.

남군 모집인데, 성별도 불문했고, 나이도 상관없고 근무일시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육군 인사사령부의 민간부사관 남군 2 선발 공고에 장교와 부사관들은 분개했다.

한 위관 장교는 “4년 간 의무복무하는 부사관이 알바생이라면, 군장학금 수령해 6년 복무하는 나또한 알바생”이라며 “조국에 대한 헌신이 10년 미만의 중·단기복무자란 이유로 차별받고 폄하된다면 목숨을 걸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현역 장교시절 가장 많이 접했던 말은 “귀관 출신이 어디냐”였다. “부산입니다”라는 답변에 선배장교들의 표정은 시멘트콘크리트가 됐다. 육사나 3사나 학군이냐 학사냐를 묻는 질문이었으니까.

첨단무기도 4차산업혁명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미래전에 대비한다고 떠들어도 사람을 챙기지 않으면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에 점령된 해골무덤처럼 대한민국 강토는 변할 것이다.

/captinm

숙명여대, 20대 총장후보자 이사회 추천

(장윤금·문시연 교수)

내달 16일 이사회서 20대 총장 지명

숙명여자대학교 제20대 총장후보 선거에서 장윤금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가 총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됐다.

숙명여대 총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마감된 숙명여대 총장 후보 2차 선거 투표 결과 1순위 후보자로 장윤금 교수, 2순위 후보자로 문시연 교수가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구성 단위 별로 이뤄진 투표에서 장 교수는 전체 유효투표수 중 51.55%를 득표했으며 문 교수는 48.45%를 얻었다.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내달 16일 열리



장윤금 교수

문시연 교수

는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 2인 중 제 20대 총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올 9월부터다.

앞서 숙명여대는 이달 15일과 18일에 열린 두 차례 정책 토론회를 통해 4인의 총장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 연구, 행정, 재정 등 각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현진 기자

성균관대-SKK GSB

미래리더 위한 특강 진행

성균관대는 SKK GSB가 오는 7월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에서 미래 리더를 위한 특강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6일 문은 연 이번 특강은 미국 인디애나대학 켈리스쿨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Executive MBA의 재학생들이 직접 주제와 연사를 추천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고 순발력 있는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강은 대형 강의실 활용, 가림막 설치, 개인 간격 2미터 유지, 소독 등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